

제 10장
기적과
비유들


다른 곳에서...

뭐라도 먹은
지가 며칠이
나 지났군.


쥐와 바퀴벌레
먹는 법을 못 배우
면 죽고 말아. 그렇
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차라리 먼저 죽고
말지. 일년 전만 해도
나는 사회에서 존경 받는
부자였는데. 이제
나를 보라구.

더 이상은 존경
받지 않아. 당신은 그
저 버림받은 문둥병자
일 뿐이야.




처음에는 언젠가 내가
낮게 되어 아내와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바랬었지. 그
런데 이제 이곳에 있는지 십 년이 되
었고, 다시 나서 사회로 돌아간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네.

A man with a beard and tattoos, looking distressed, with a speech bubble containing Korean text.

처음엔 아내가 자식들을 데려와서 먼 발치에서 나와 이야기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드물게 오더군. 이제 아이들은 다 컸을테고, 나를 봐도 알아보지도 못할 걸세.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야.

제길, 자기연민은
좀 그만두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도.
뭐 먹을 거라도 구걸할 수 있
는지 나가 보자구.






오늘은 큰
길에 가보는 거야.
우리가 무서워서 동
정이라도 좀 해줄지
보자구.

같이 다니세.
좀 더 안전할지
도 몰라.



길에 오는 사람들
들이 보인다!



조심해!
또 그 사내녀석
들이야.

이 더러운
문둥병자들아, 꺼져
버려. 어디 가서 죽
어버리라구.


더러운 벌레들!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야.

뛰어!
도망가!

더럽다, 더럽다!
우린 모두 더럽소.

문둥병자다! 가까이
오게 하면 안돼. 문둥병
이 옮을지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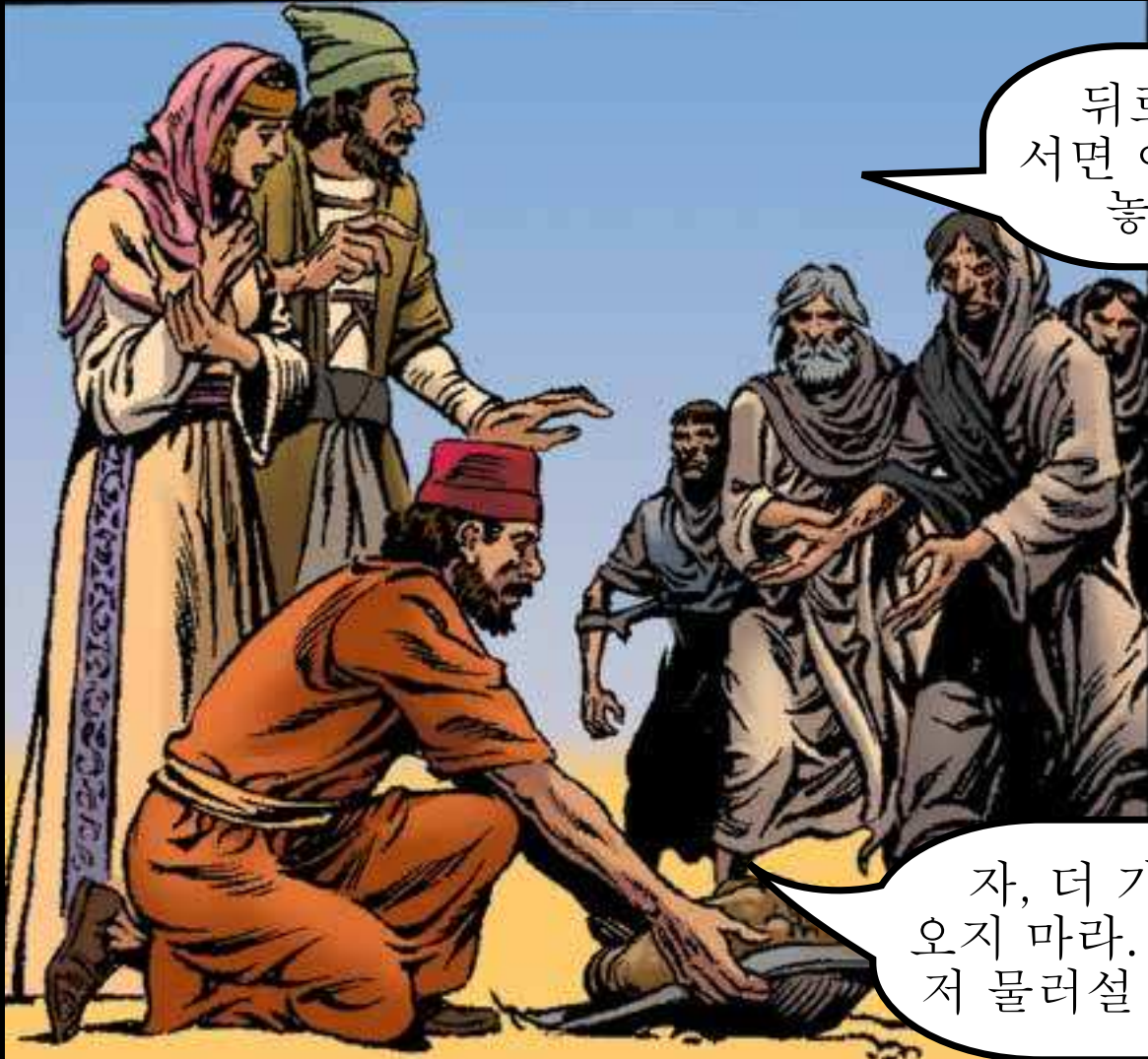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에게 한
입씩만 먹을 것을 나눠
주시겠소?

뭐 좀 줘서 가
버리게 해요.

뒤로 물러서! 너희
는 정결치 못하다.



뒤로 물러
서면 여기 땅에
놓겠다.

자,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먼
저 물러설 테니까.



빵이다!

먹을 거야!

나도 좀 줘요!

다 먹지 마!



이 돼지!

내꺼야!

빵이다! 빵이야!


세상에!



저기 큰 일행
이 오는군.


조심해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

게다가 전부
남자들이야.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야. 이 병에 걸리
기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지. 그는 사람들을
고치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
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고 자기와 하
나님은 하나라고 말
했어. 저분이 소경과
앓은 맹이를 고치는
걸 봤다구.



예수님! 도와
주세요!

선생님,
저들은 문둥병
자들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무얼
해 주길 원하
느냐?


우리를 불쌍
히 여기서 고쳐
주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만지시면 안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주어라.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가 보고 집에 돌아가 가족을 만나게 허락할 것이다.



우리가 깨끗해
졌다고 하셔.

성전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우리를 내
쫓을 텐데요.

나는 이분
말씀대로
할 거야.

나도 마찬가
지다. 가자.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해졌다고 하셨어.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변하고
있잖아!






내 피부가 다
나왔어!

예수님이 하셨어요!
완전하게 나왔네요!

당신도 더
이상 흥하지
가 않아!


가서 아내를
찾아야 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이 제 삶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열 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게다가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다.

누가복음 17:14~19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으로 들어갈 사람이 많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렵고 좁아 그 길을 찾는 자는 아주 적을 것이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라.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의 날이 오면 많은 사람
이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할 것이다. “주
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
니다. 저는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금식
하고 기도했으며 종교 후원으로 돈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저주받은 자
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
희가 영원한 불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곳은 영혼도
결코 죽지 않고 불도 결코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
가는 곳이다.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시작
하셨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악한 자가 아니라 정직
하고 공정한 사람이었지만, 주로 자
신만을 생각했다.

그래서
날마다 돈을 쌓
아가고 점점 더
부유해졌다.

내가 먹다 남은
조각을 집 문밖의 거지
에게 주어라. 나는 긍
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
이니까.




예, 주인님,
거지가 분명히 감사
를 드릴 겁니다.



주인님께서
이 음식 부스
러기를 주라
고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 자기 백성을 먹이
시는군요. 이건 제게
과분합니다. 주인님께
제 대신 감사를 전달
해 주십시오.

나는 재산이
너무 많아. 내
물건을 다 넣
어두려면 더
큰 창고를 지
어야겠어.



어리석은 자야.
오늘밤 네가 죽어 네 영
혼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
어있고 그 후에는 심
판이 있을 것이다.”

헉! 으윽 ~~~


누가복음 16:19~22; 히브리서 9:27

부자의 장례 행렬이 집을 떠날 때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도 죽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늙은 거지 나사로야. 이 사람도 밤에 죽었구먼.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데.

사람들은 나사로의 시체를 수레에 실어 동물을 버리고 태우는 곳에 가져갔습니다. 장례식도 없었고 그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오! 이렇게 좋을 수가! 죽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형제 나사로여, 집에 온 것을 환영하오. 여기서는 결코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오. 이리 오시오. 상을 차려 놓았소.



그는 좋은 사람이
었지. 때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심하기도 했지
만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정
직하게 거래한 자로 항상 기
억될 거야.

이제 자기 상을
받으러 갔으니 그 영
혼이 영원토록 평안
하기를...

부자는 아주 훌륭한 장례식을 치르고 멋
진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돈을 사랑했
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유언에 자기들에
게 남겨준 돈이 있나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고나서 끝없
는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6:22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 불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가 거기 있군요.
그에게 손가락 끝을 물에 찍어 제 혀를
적시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애야, 도울 수 있다면
돕겠지만,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고 바닥에는 불뿔이 있어 우리가
너를 도우러 건너갈 수도 없고 네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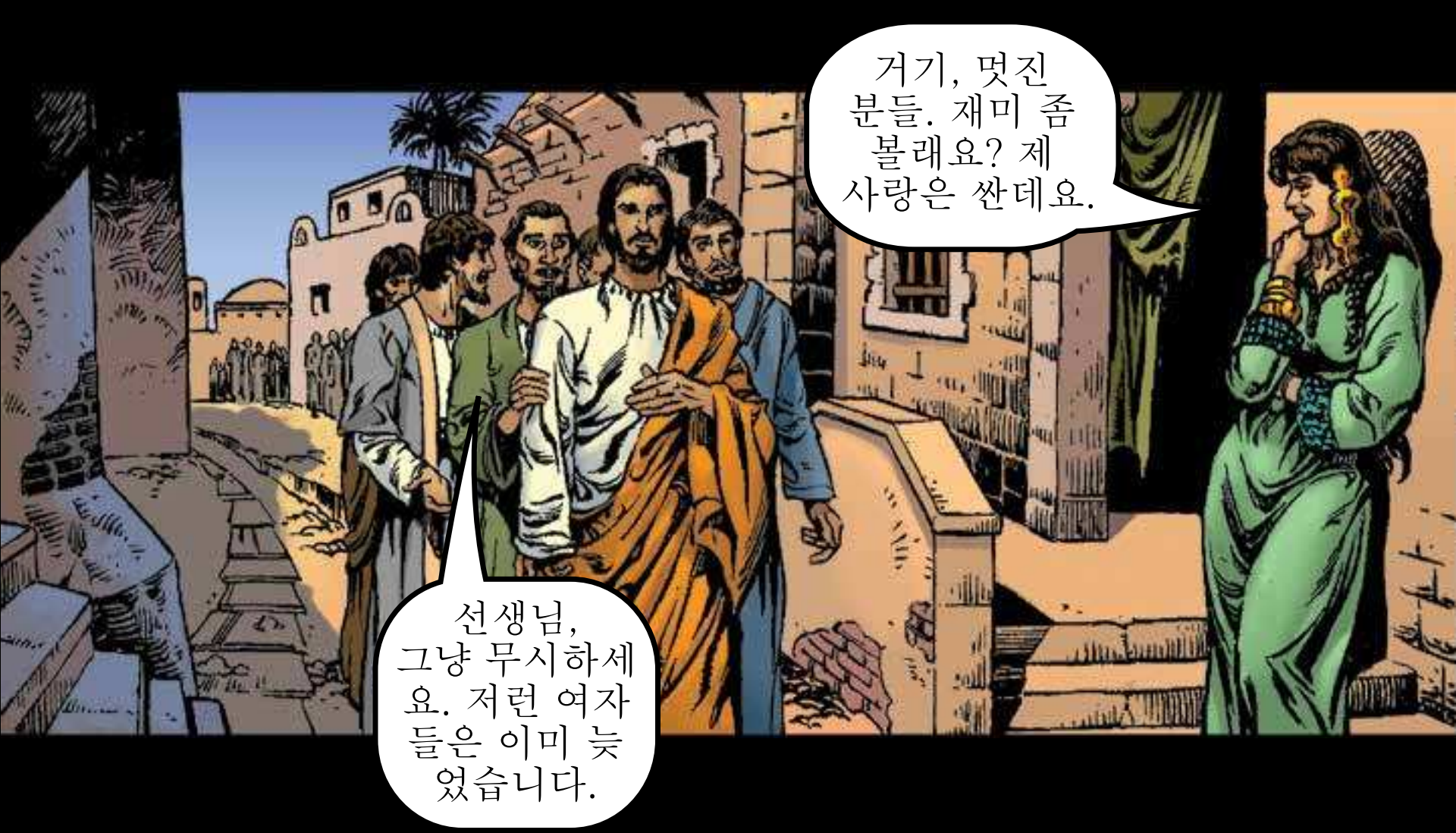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다시
보내서 우리 다섯 형제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제발 이 끔찍
한 고통 속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느냐. 성경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기적을 보면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설득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미안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기, 멋진
분들. 재미 좀
볼래요? 제
사랑은 짝데요.


선생님,
그냥 무시하세
요. 저런 여자
들은 이미 늦
었습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보세요.
저도 경건한
여자예요. 하
나님을 믿는
다구요.

사탄이 너를
속였구나. 너는 불뭇에
갈 수밖에 없다.



당신 친구들 얘기
들었죠? 난 너무 늦었다구
요. 난 어려서부터 남자들
하고 같이 잤어요.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으셨다. 네가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가 네 죄
를 용서하고 네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 영혼은 사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요. 만일 ... 만일...



아악!


귀신이 잔뜩
들렸어!

물러서!




○○○!

사탄아,
나와라!



내가 명하니 그 여자
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의 명령에 일
곱 귀신이 그 여자
에게서 떠났습니다.



다 물러갔다!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예수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이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선
생님을 따르며 더
배우겠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지?



선생님, 일어난 일을
다 봤습니다. 놀라워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를 낮에는 모른 척 했지만 밤에
는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거든
요. 선생님이 저여자에게 새로
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따라 가겠다.

선생님, 제자들
과 함께 저희 집에 오
셔서 식사하시겠습니
까? 제 친구들도 선생
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패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순수할 수 있습니까? 법을 좀 변형시켜 써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들을 위해 일하라. 네 자신의 부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라.




인생은 먹는 것
과 입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 백함화도 입히시
는데, 너희는 당연히
입히실 것이다.

때가 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
판 자리에 서게 될 것이
고 이 땅에서 행한 선하
고 악한 모든 행위를 설
명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들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살기는 다르게 산다. 그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그릇과도 같다.

너희가 그들보다 의롭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 당신은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있소? 여기 이 모든 죄인들 중
에 막달라 마리아도 보이는군. 스스
로 의롭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들
과 같이 먹을 수가 있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주는 이야기
를 하나 해주마.



어떤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작은 아들은 반항적
이었고 방종하는 삶
을 살고 싶어했지.

야, 이 이
야기 재미
있겠네요.



아버지, 농장
중 제 몫을 지금 주
시기만 하면 도시에
가서 큰 돈을 벌겠
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몫의 유산
을 지금 달라고
요구했다.

얘야, 내 모든 소유는
너의 것이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너와
네 형이 유산으로 받을 것이야. 너
는 평생 동안 부유하게 지낼 거다.
우리는 양과 소도 많고 우리 들에
는 매년 곡식이 풍성하다.
종들도 많은 데다가 또...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가
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농장에서 살면서 평생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젊을 때
재미있게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네 친구들은 다 게을러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경
주 말이 제일 빠른지, 어느
술이 제일 좋은지, 어떤 여자
가 제일 흥미로운지에만 관
심을 두지 않느냐?



아버지가 인생에 대해
무엇을 아세요? 평생 이 오래된 농
장에만 쳐박혀 사셨잖아요. 농장의
제 몫을 지금 주세요. 저는 도시에
가서 제 식대로 살겠습니다.

줘 버리세요. 그 녀석이
없으면 우리가 더 잘 살 겁니다.
어차피 자기 몫의 일도 전혀 하
지 않는 걸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그의 몫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쾌락
을 얻을 수 있는 큰 도시들
을 향해 바다를 건너 멀리
갔습니다.

그래, 이게 삶이
야. 아무도 이래
라 저래라 간섭
하지 않잖아.

누가복음 15:11~13

작은 아들은...

야~, 내
상상보다 더 화려한
데. 이 사람들과 건물
들. 뭔가가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지.


좋은 아파
트를 빌려
야겠군.




그래, 아주
좋군. 이걸로
하겠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부르기만 하
십시오. 밤에나 낮에
나 도와드립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군. 내일
은 나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 봐야지.




어머, 이게
누구야? 시골 청
년?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잘 생겼을
지도 모르고.

여보게, 뭔가
해보려면 그 턱수염
좀 깎고 좀 더 좋은
옷도 마련하는게 좋
을 걸세.

이 자식, 새
옷을 입으니 봐
줄 만한데.






오늘 저녁 자
리에 와줘서
고맙네.

얼굴에 그
지저분한 털들을
다 없애니 이제
참 잘 생겼지
뭐야?



새 친구를 위해 건배.
언제나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를
...

사랑도요...



웨이터, 내
친구들에게 포
도주 좀 더 가
져와.


우리 둘만 자기 아
파트에 갈까?



이렇게 그 젊은이는
고향에서 멀리 떠나 오랫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가
돈이 있는 동안은 많은 친구
들이 곁에 있었다.



드디어 어느 날,
어리석은 쾌락으로 돈이
다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아주 부유한 친
구가 많이 있었다.



돈이 더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부자인 줄 알았
는데?


저기, 여기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
게다가 지난 주 경마에 내
기해서 남은 돈 다 잃었
어. 확실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너 정말 돈 한 푼
없다는 거야? 사준다
고 약속한 그 드레스는
어떻게 살 건데?

혹시 네
아버지가 그의
땅 일부를 관리
하는 일이라도
주지 않을까 바
라고 있었지.

뭐, 일거리?





이 불결하고
더러운 돼지를
먹이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군.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는
데. 이젠 내게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
그렇지만 좀 더 나
은 일을 찾아 다시
성공해야지.

OINK

SLUUUKK

꿀꿀
꿀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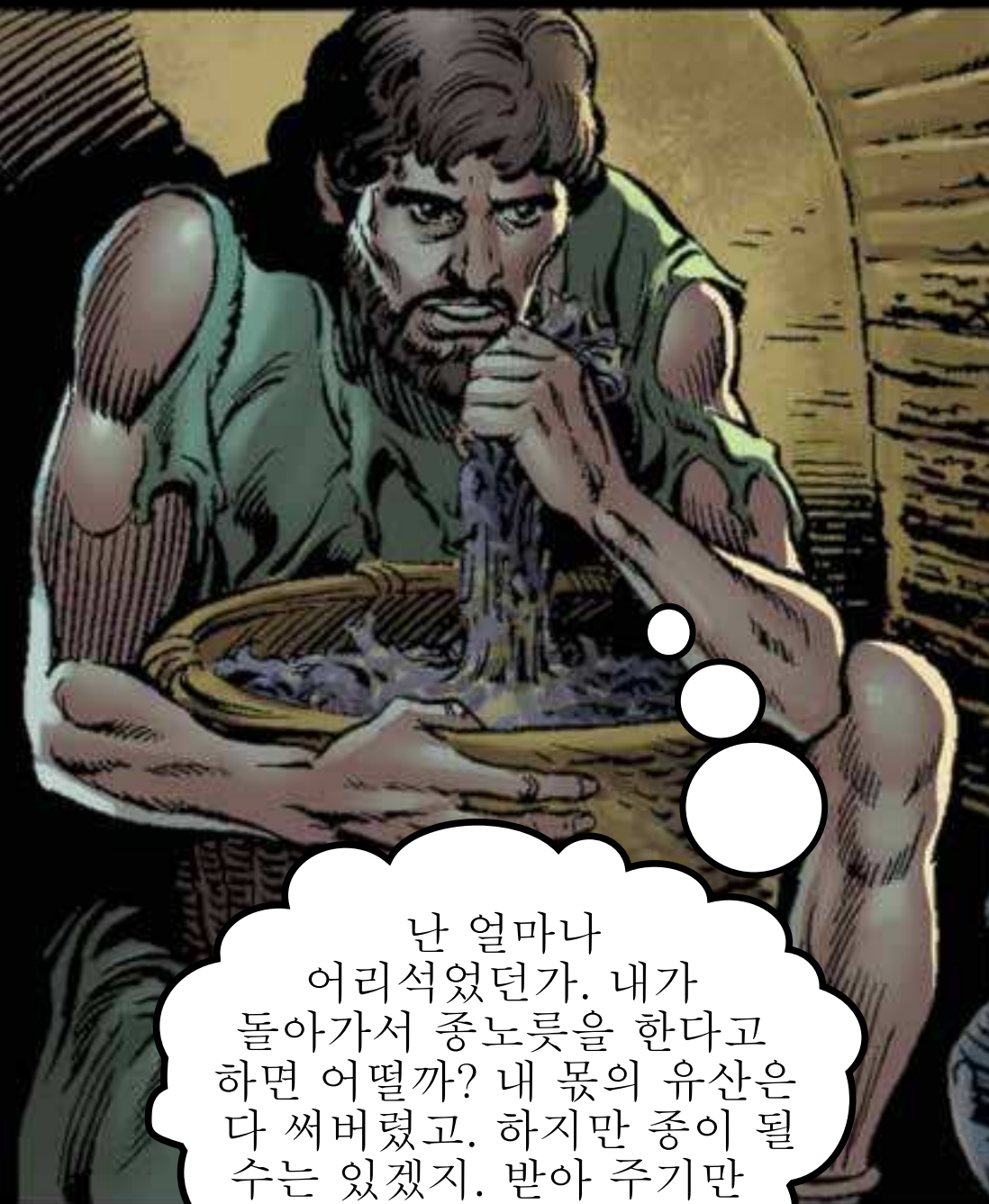


네가 아프건 말건 상관
없어. 어서 나가 돼지들이나
치라구! 아니면 너는 해고하
고 다른 사람을 구할 테니
까. 자, 당장 일해!

네, 죄송합니
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해봤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
는데. 예전에 친구라
했던 그 녀석들은 잘
먹고 있겠지.



난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내가
돌아가서 종노릇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내 몫의 유산은
다 써버렸고. 하지만 종이 될
수는 있겠지. 받아 주기만
한다면 말야.

내가 왜 이 꼴이
되었을까? 춥고 배고프고 피곤
하다. 나는 이제 이 돼지죽도 먹을 수
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종들은 먹을
음식이 많아 다 먹지도 못하지 않는가.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야, 돌아
갈 수 없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 나를
경멸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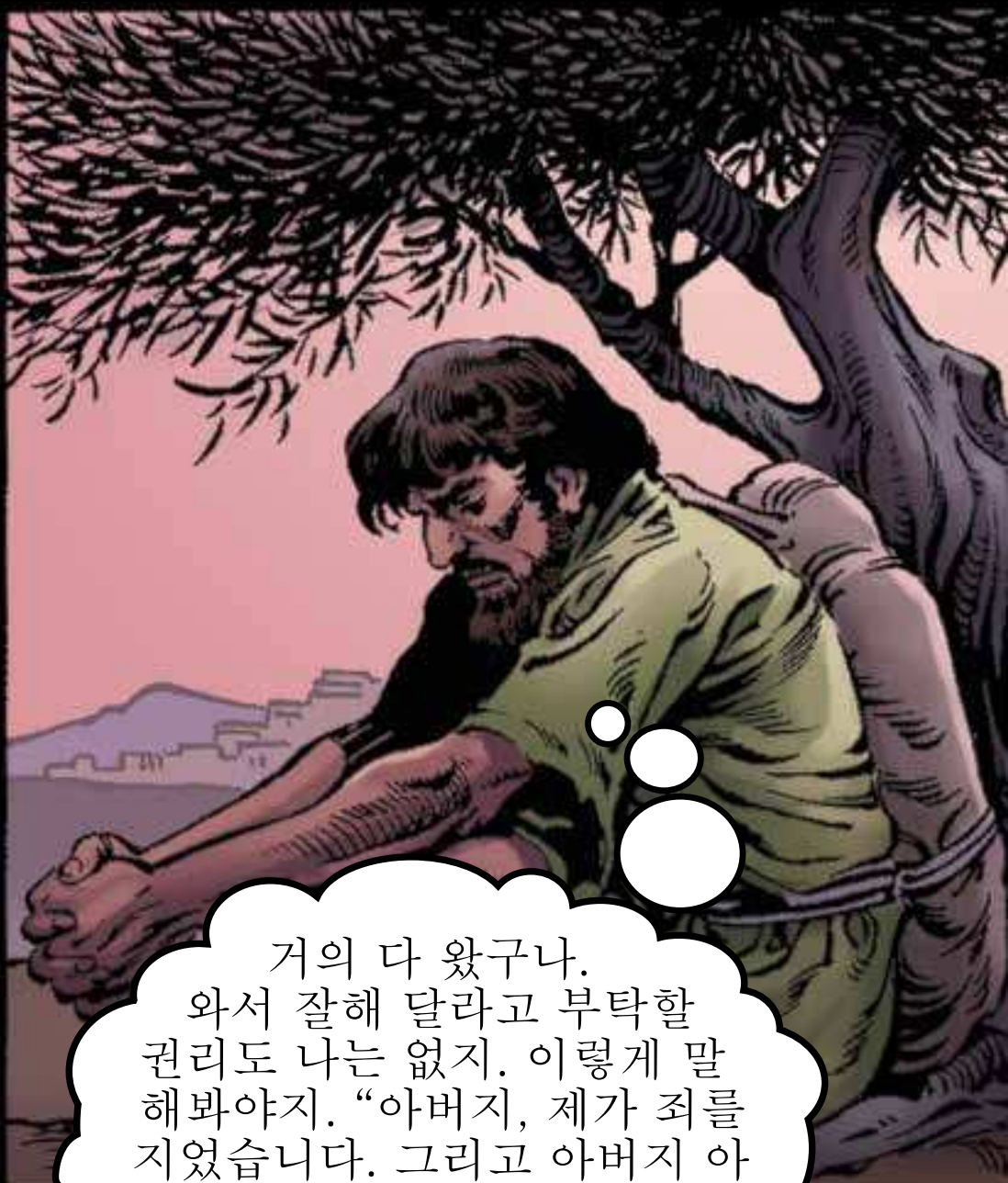





집으로
가야겠어.

이 바보!
돈도 없으면서.
천리는 걸어야
할 걸.

몇 주를 걸은 후
에 그는 거의 집
에 도착했다.



거의 다 왔구나.
와서 잘해 달라고 부탁할
권리도 나는 없지. 이렇게 말
해 봐야지.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
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 주십시오.”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보이느냐? 내 눈이 침침해져 예전
처럼 보지는 못하지만 꼭 내 잃어
버린 아들처럼 걷는구나.

네,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
마르긴 했지만,
주인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야!




아들아, 내
아들아! 드디어
돌아 왔구나!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오다니. 먼저 목욕부터 해야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종들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고 발에 신발을 신겨야지. 반지가 없어졌구나. 그래, 반지도 필요하겠군. 잃어버린 내 아들을 이제 찾았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해라.
손님도 초대하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한껏
즐기자꾸나.



이 경사스러운 날
오셔서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시니 정말 좋습니다. 제
아들이 고생해서 아직은 약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고
곧 건강해질 겁니다. 이 날
은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날입니다.



큰 아들은 며칠 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보니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음악과 춤 소리가 다 무엇이나?


동생분이 아주 안 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돈도 없고 아픈 몸으로요. 주인님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빨리 들어가 보세요.

이 바보같은 짓에 난 참가하지 않겠다. 그놈은 죄와 수치와 삶의 삶을 살았어.

좋은 주인에게 큰 아들의 말을 전했고, 아버지는 아들과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영원히 잃었나
생각하며 오랫동안 그를 찾아왔다.
거의 포기할 찰나에 저 아이가 길을
걸어오지 뭐냐? 이런 축복이 있을 수
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런 죄인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같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이야기이긴
하오만, 혹시 우리가 그 큰
아들과 같다고 던지시 말하
는 거 아니요?


귀있는 자는
듣도록 하여라.



이 사람은
위험해. 모두가 그
를 사랑하지 않나.

이 자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


그래, 하지만 거짓 소망이지.
누가 죄인에게 영생을 약속할 수
있나? 그는 죽어야 해. 다들 모아
봐. 대제사장의 집에서 오늘 밤 모
이도록 하지.

A group of men in a desert landscape. One man in the foreground, wearing a white and orange robe, is speaking. Behind him, a line of men in yellow and brown robes follows. The background shows a sandy desert with some green plants, a small town, and mountains under a blue sky.

가자. 갈릴리로 돌아가 잠시 쉬자.
때가 오면 저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것
이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야. 하지만 세째 날, 내가 죽
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서 살아나다니
무슨 뜻이지?

모르겠는
데. 무슨 비
유겠지.




선생님, 급합니다!
마르다가 선생님을 찾으
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
오빠 나사로가 아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친한 친구
아닙니까. 서둘러 가시면 그가
죽기 전에 도착하실 겁니다.
선생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갈 것이라고 말해라. 그리
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일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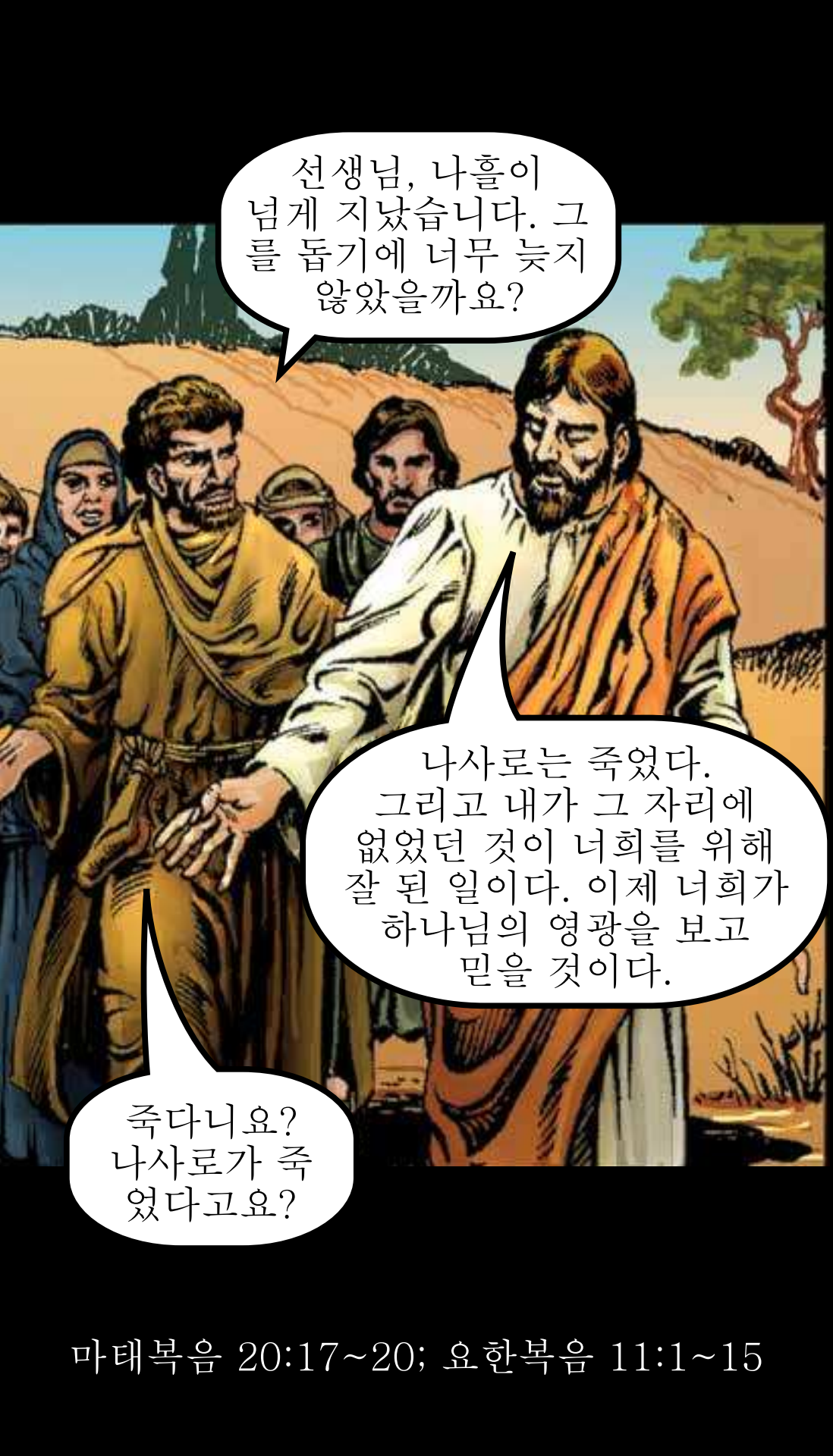
나사로가
아프다고?
빨리 가야
합니다!

이틀 후



선생님, 친구
나사로가 아파 죽어간
다는 소식을 들은지 거의
이틀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거기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
릴 텐데, 이제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 떠나자. 너
희가 하나님의 영
광을 볼 것이다.



선생님, 나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를 돕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너희를 위해
잘 된 일이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을 것이다.

죽다니요?
나사로가 죽
었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문
밖에 계시오.

안돼!

거기서 날 기다리라고
말해주세요. 바리새인과 제사
장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들
이 들어오기는 위험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요.

아!


불쌍한 나사로!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
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
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는대로 하나님
이 해주실 거예요.


네 오빠는 죽음
에서 다시 살아
날 것이다.

세상 끝날
부활 때에 다시 살
아나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
지 않을 것이다. 네
가 이것을
믿느냐?

A close-up illustration of a woman with a blue headscarf, looking upwards with a surprised or reverent expression. Her right hand is raised in a gesture of prayer or awe. A speech bubble is positioned to her right, containing Korean text.

네, 주님.
주님이 바로 하
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 오시
기로 예언된 메
시아이심을 믿습
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이야기한 뒤, 종을
보내어 마리아를 불
러오게 했습니다.

오!

가보세. 통곡하러
무덤에 가고 있어.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
빠는 죽지 않
았을 거예요.

그를 어디에
눅혔느냐?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를 얼마나 사랑하
셨는지 보게.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이가
친구를 죽지 못
하게 할 수는 없
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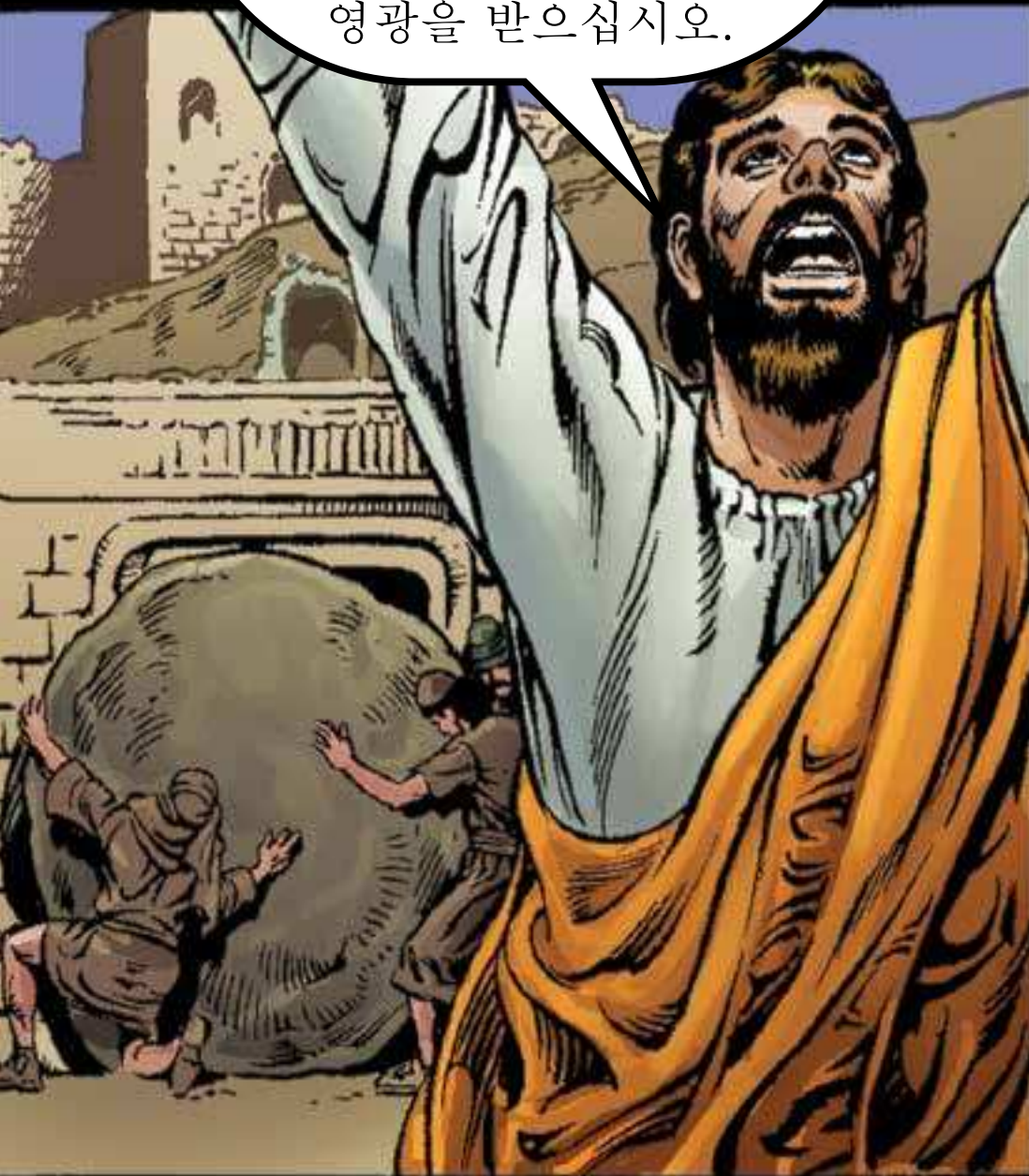
A colorful illustration of Jesus with a beard and long hair, wearing a blue tunic and a yellow shawl. He is pointing his right hand towards a large, round stone in a ruined city.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tone buildings with arches and a clear blue sky. A group of people, including a woman in a blue headscarf and an older man with a white beard, are looking at Jesus with expressions of concern and surprise. In the distance, two more people are walking towards the stone.


돌을 굴러
옮겨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
지 않았느냐? 돌을
치워 놓아라.

그렇지만 주님,
죽은 지나홀이
나 지나 악취가
날텐데요.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 제가 아오니, 제
가 이렇게 기도함은 저를
위함이 아니라 여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
셨음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
다. 아버지, 이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번엔 좀
지나치군.

그러게, 자
신을 웃음
거리로 만
들고 있어.



몸이 벌써 썩
었지 않나.

그가 사기꾼
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나면, 우
리가 그를 잡아 죽이
기가 더 쉬워질
걸세.




아니!
믿을 수
가 없어!

이럴 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야~!



하셨어, 마리아!
그가 해 내
셨어!

오빠가
살아났어! 나
흘 만에 살아
났어!



그를 풀어
주어 다니
게 하여라!

나사로는 죽은지 나흘 만에
베옷에 감싸여 손발이 묶인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왜 이리 야
단법석이오? 이 베
옷 좀 풀어주소.

당신은 나흘
동안이나 죽
어 있었소.

선생님, 선생님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리
신 게 맞지요?





아, 오빠,
너무 보고 싶
었어요.

배가 고프구나.
조객들을 돌려보내
고 같이 먹자.


오, 주 하나
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가 방금 본 일을 믿을 수 있겠소? 그 일을 꾸몄다는 건 말도 안 되오. 사람들이 나사로를 묻기 전에 내가 봤소. 그는 완전히 죽어 있었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말이오.



예루살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를 왕으로 삼을 거요.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만 하오.


즉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야겠소.



저 예수라는
작자, 오늘 큰 사
기를 쳤소. 본 사람
들도 다 그가 정말
로 죽은 사람을 살
려냈다고 생각
하니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상관없소. 그를 멈추
지 않으면 그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을 거요.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나면 로
마가 우리의 권력을
빼앗을 거요. 그들은
우리가 평화를 유지
하길 바라니까.



하지만 예수는
로마에 대해 한번
도 폭력적이거나 반
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소.

그의 말이 폭력적이지
않소! 그는 공공장소에서 우리
를 위선자라고 불렀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지. 그들은 공공연
히 우리를 조롱하고 있소!




그를 없애야
하오. 자신이 죽
었다가 다시 살
아나지는 못할
거요.

그가 우리
종교에 대한 존경
심을 다 없애버리
기 전에 빨리 해
야 하오.

로마인들이
우리에 대항
해 행동을 취
하기 전에!


저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그들의
구원자로 왔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죽은 뒤에 로마는 저들이 그리
도 사랑하는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
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감옥에 갇힐 때가 올 것이다. 너희
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
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너
희 중 몇몇은 그들의 손에 죽을 것
이다. 또 어떤 이들은 집에서 쫓겨
나고 직장을 잃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아라.
전쟁과 지진과 병과 기근
과 온갖 재난이 있을 것이
지만 이것들로 종말이 오
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슬픔의 시작일 뿐이다.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점령될 것이다. 내가 돌아왔으니 여기 저기로 가서 나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나로 가장하거나 나를 대변하는 척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는 번개와도
같이 올 것이니 모든 눈이 나를 볼 것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내가 이 땅
에 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전
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경험한 그 어
느 때보다 더 심한 환란일 것이다.

마태복음 10:22, 24:2, 5~9, 21, 27~31; 누가복음
19:43~44, 21:8; 요한복음 11:49~53; 요한계시록 2:10



선생님, 마르다가
선생님을 찾으라고
저를 보냈어요. 선생님과
선생님 제자들이 집에 오시
면 기쁘겠다고 전해달래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못 돼요. 어떤 사람들
은 선생님이 우리 주인님을
다시 살리셔서 못마땅해
하거든요. 오셔서 저희와
함께 있지 않으
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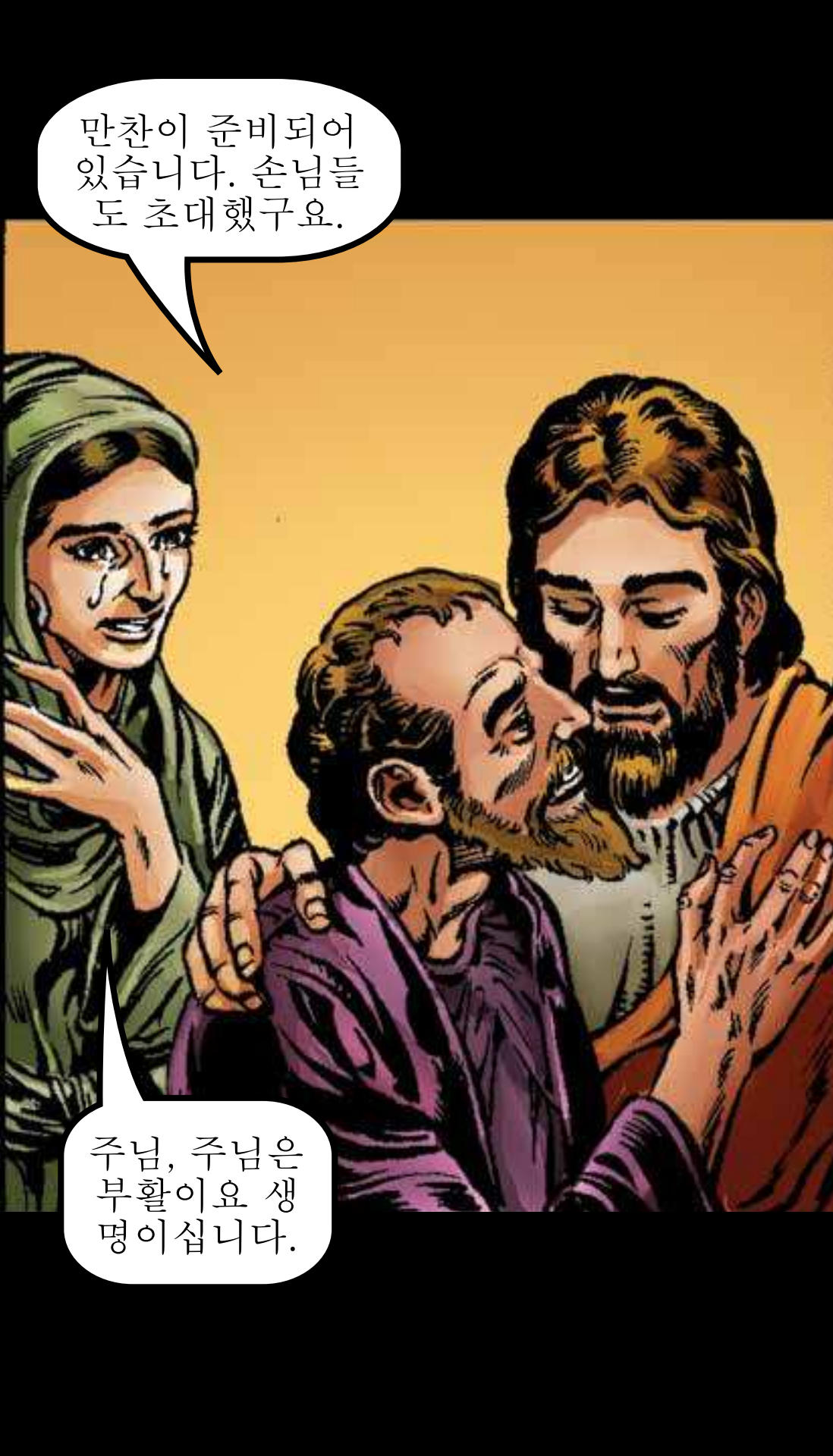
기쁘게 가마.
내 시련의 때가 오기
전에 그들을 한 번
더 보고 싶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에요!


선생님! 이 집은 선생님이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쉬십시오.

예수] 내 친구 나사로야, 지난 번 봤을 때보다 좋아 보이는구나. 네 무덤 대신 네 집으로 오니 참 좋다.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들
도 초대했구요.

주님, 주님은
부활이요 생
명이십니다.



선생님,
믿을만한 출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유
대인들이 강제로 선생
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위해 내 생명을 주고
자 함이다. 나는 감옥에 갇히고 십
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제 삼일
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마태복음 20:19, 26:2;
요한복음 12:1~2, 14:6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주
를 믿는 자는 죽지 않
을 것입니다.




마리아,
그 향료를 가지
고 무얼 하는 겁
니까?





나의 주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어
도 당신은 다시 사
실 것입니다.



마리아, 그
향유는 1년치 봉급만큼
이요. 왜 그것을 낭비
합니까?


하지만 선생
님께 붓고 있
지 않나.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
님의 발을 자신
의 머리카락으
로 닦았습니다.



그녀를
놔둬라. 내가 곧
묻힐 것을 예비하
여 한 일이다.



묻히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은 아니겠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이미 너
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부인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묻힐 것이다. 하지
만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마리아는 내 몸이
묻힐 것을 예비하고 있을
뿐이다. 내 시간이 왔으니
내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가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마태복음 20:19; 요한복음 12:3~8, 10:11



선생님, 온
예루살렘이 선생님
이 오시길 기다리
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탈
당나귀를 끌고오너라. 이
제 마지막 이 한 번 예루
살렘에 갈 것이다.



선생님, 수많은 무리가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
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들이 선생님을 왕으로
삼을 겁니다.


나는 부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다. 하지만 제 삼 일에 부
활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께 찬양을!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찬송하
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
는 자여!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 길을
열라!

하나님께
찬양을!

약속의 구
원자이시다.

요한복음 12:12~13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부
릅니다.

] 그들 생각엔 그
가 약속된 메시아
인줄 알고 있소.


왜 성전에
오는 걸까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알텐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
하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집을 악용하고 있구나.
기도의 집이 아니라 시
장 같아 보이는군.

아주 좋은
가격에 드리겠소. 별
써 제물로 승인이 난
겁니다.



미안하지만
더 나은 환율을
원한다면 다른 곳에
가야 할 거요.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요.

예수님은 또 한 번 성전에서 도둑놈과 불량배들을 내쫓으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 상품들을 치워라! 너희들은 도둑과 강도의 무리야.

너희는 기도하러 오는 자들에게서 돈을 벌려고 여기 오는구나! 돈과 함께 지옥에 가버려!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 거야?

꽝!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꽂!

꽂!


무슨 권한으
로 이러는
거야?

네가 누군
데 이러는
거냐?



선생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감시하라고 첩자를 보냈습니다. 유월절이 지금부터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그들이 선생님을 감옥에 넣을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가 승리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성전을 깨끗케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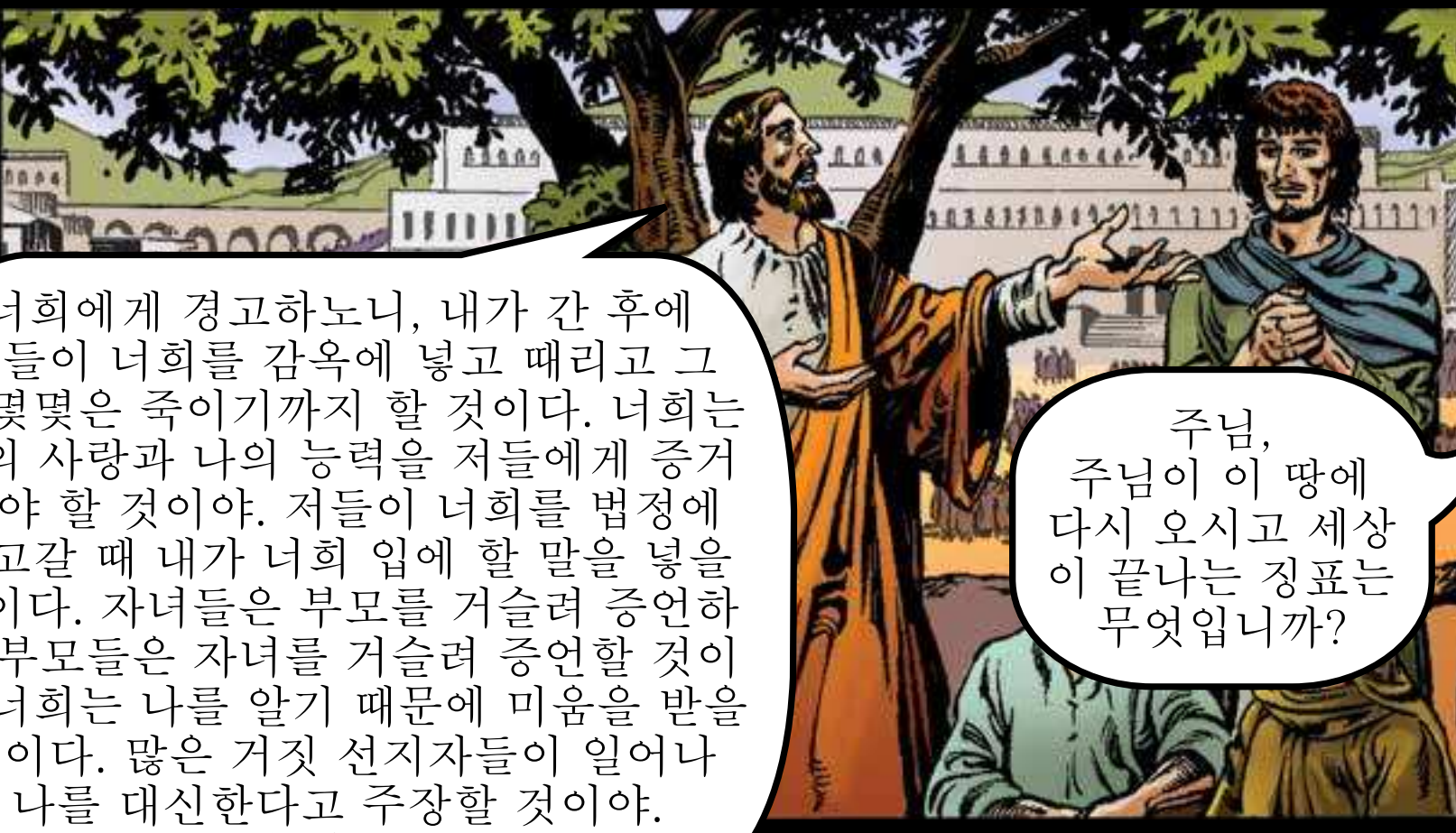


내가 그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삼일만에 내가 다시 살아
날 것이다.

아네.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를
삼켰다고도 하고 그가 갑자기 자기
성전으로 올 것이라고도 하지. 그건
메시아라는 주장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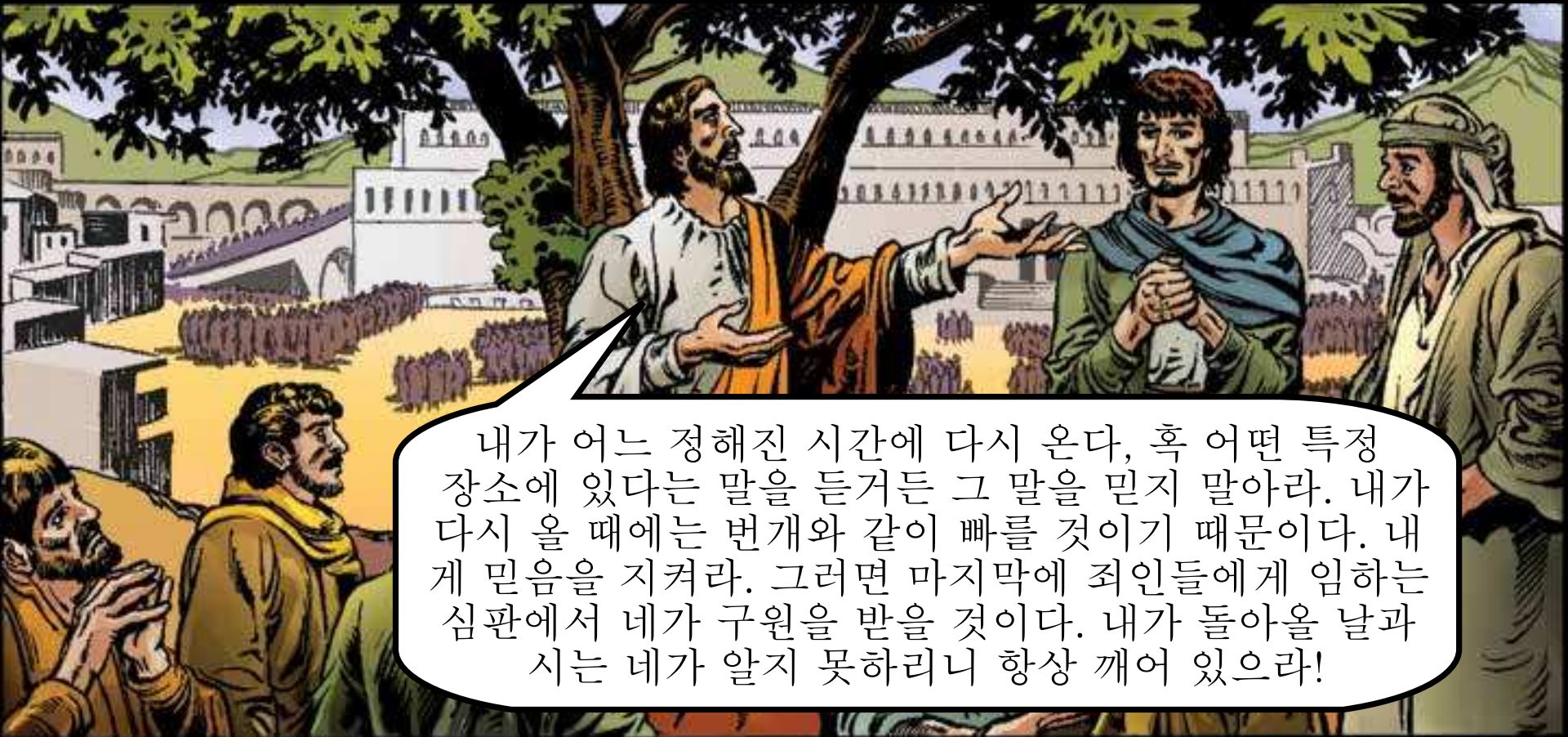
유월절 전에
그를 막아야 하네. 그의
제자들 중에 우리 첩자
가 있어.

시편 69:9; 마태복음 21:12~13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내가 간 후에
저들이 너희를 감옥에 넣고 때리고 그
중 몇몇은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을 저들에게 증거
해야 할 것이야. 저들이 너희를 법정에서
끌고갈 때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넣을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거슬러 증언하
고 부모들은 자녀를 거슬러 증언할 것이
며 너희는 나를 알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나를 대신한다고 주장할 것이야.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세상
이 끝나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정해진 시간에 다시 온다, 혹 어떤 특정 장소에 있다는 말을 듣거든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번개와 같이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마지막에 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에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돌아올 날과 시는 내가 알지 못하리니 항상 깨어 있으라!

내가 돌아오기 전에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니, 그 때에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홍수가 나서 자기들을 휩쓸어 갈 때까지 그것을 몰랐다. 나는 마치 강도가 밤에 오듯 갑자기 올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명은 고를만 한 것이라며 다른 한 명은 남아고 통을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명의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러질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것이다. 깨어 준비되어 있으라. 너희가 예상치 못하는 날에 내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 시내에
들어가 누구를 좀 만
나야 합니다.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가거라, 유
다야!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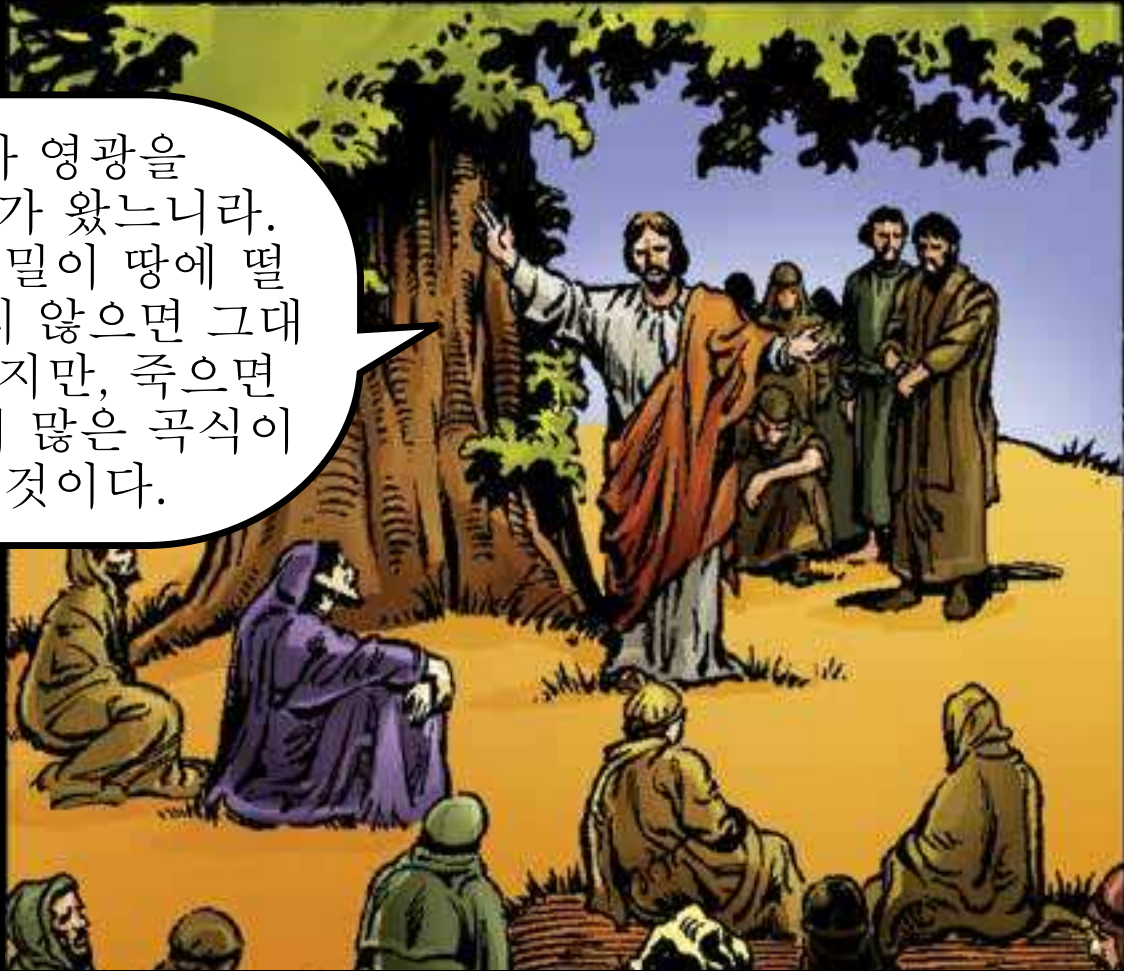


만약 값이
맞으면 예수를 당
신들 손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의
제자 유다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와 함께
한지 3년이 됐지요. 하지만
이젠 지쳤습니다. 그는 미친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
로 남겠지만, 죽으면
증가하여 많은 곡식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14~16; 마가복음 13:5~13; 누가복음 17:26~37; 요한복음
12:23~24; 베드로후서 3:10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롭구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이 아니던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내가 내 이름을
이미 영화롭게 하였
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천둥소리같
이 컸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하셨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
어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 멸망할 시간이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한 말을 저희가 아는데, 당신은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시니, 도대체 누가 메시아 입니까?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머물지 않고 영
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2:27~36



<https://goodandevilbook.com/>